

미국 전략무기 한반도 배치 확대 ... 'FTA 폐기' 단어 안 나왔다

한·미정상회담 무슨 말 오갔나

북한 위협 강도 따라 무기 선택적 투입

한·중관계 개선이 북핵 문제 해결 도움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개최한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 전략자산(무기)의 한반도 순환 배치를 확대 강화하기로 합의해 대북 억지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트럼프 대통령과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함께 대응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저는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와 인근 지역으로의 순환 배치를 확대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 전략무기 배치 강화와 관련해서는 지난달 28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 회(SCM)에서도 양국 국방장관 간에 논의가 있었지만, 이번 정상 간의 합의로 더욱 실효성을 갖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그동안 유사시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 공약의 실효성 보장을 강하게 요구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배치 확대 강화에 합의한 것은 실효성을 담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어서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술 핵재배치 주장들이 수그러들지 주목된다.

미국은 B-1B 전략폭격기의 경우 이미 매월 1~2차례 한반도에 정례적으로 출동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다른 전략무기인 F-35A·F-22 스텔스 전투기, B-52·B-2 장거리 폭격기, 핵 추진 잠수함 등의 배치 등이 거론되고 있다.

미국은 앞으로 정상 간의 합의에 따라 전략 자산의 한반도 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개 방식은 북한의 위협 강도와 수준에 따라 전략무기를 선택적으로 투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달 말 SCM 공동기자회견에서 "전략자산은 전세계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자산으로, 한미연합사령관의 필요가 있고 명령이 있으면 언제나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F-35A와 F-22 스텔스 전투기, 핵 추진 잠수함 등이 일정한 주기로 주한미군 기지와 해상에 고정해서 배치될 지가 관심을 끈다. 북한의 위협 강도가 최고조에 달한다고 판단되면 이들 전략무기의 일정 주기 고정 배치가 예상된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 추진 잠수함과 최첨단 정찰자산을 구매하거나 공동 개발하는 방안을 긴밀하게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전 정부에서 합의했던 무기 구매는 지속해서 이어갈 것이며 우리 정부는 최첨단 자산과 관련해 별도로 미국과 추후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무기를 구매할 수도 있고 같이 개발할 수도 있는 시스템"이라며 "기술적 측면부터 시작해 여러가지 함께 검토하며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원칙적으로 부분은 승인했지만 하나하나 풀어가는 데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혀, 당장 구매가 이뤄지는 단계는 아니란 점을 내비쳤다.

한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과 관련, "정상회담에서 한미 FTA 폐기란 단어가 나오지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에 대해 신속하게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는 취지의 발언했다.



함께 걷는 한미 정상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공식 환영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함께 행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계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는 취지의 발언했다.

중국과의 관계와 관련, "포괄적으로 중국과의 관계 필요성에 대해 문 대통령이 언급했고 그것이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다"며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한국과 중국의 관계 개선이 북핵 문제를 푸는 데에 도움이 되고 여러가지 측면에서 한국이 다양한 나라와 관계를 증진하는 데에 동의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정상회담에서 북한에의 군사 옵션 실행 가능성을 거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트럼프 방명록에 "문대통령, 매우 큰 영광이다. 고맙다!"

한·미정상회담 이모저모

양국 정상의 부인인 김정은 여사와 멜라니아 여사는 이날 차를 나눠 마시며 '내조 외교'를 펼쳤다. 지난 6월 문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 7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이어 세 번째로 만난 두 사람은 청와대 내부를 산책하며 양국 정상 못지않은 돈독한 우의를 다졌다.

두 사람은 정상회담이 시작된 시각인 오후 3시 35분경부터 약 20분간 청와대 본관 1층에 있는 영부인 접견실에서 환담을 가졌으며 이후 청와대 소정원, 녹지원 등을 함께 걸으며 청와대 의 가을을 함께 했다. 이후 두 사람은 상춘재에서 정상회담이 끝날 때까지 담소를 나눴다. 김 여사는 이날 "두 분의 국민방문으로 한국의 평화가 증진되고 양국의 신뢰관계가 더 돈독해질 것이라고 믿고 저도 힘을 보태겠다"는 입장을 보였고 멜라니아 여사는 "따뜻하게 환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고 화답했다.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국빈 방문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된 공식 환영식이 끝난 즈음 본관에 들어가기에 앞서 1층 로비 방명록에 "문 대통령, 매우 큰 영광이다. 고맙다(President Moon, This is such a great honor. Thank you!)"라고 적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미국 워싱턴 백악관 방문 당시 방명록에 "한미동맹, 평화와 번영을 위한 위대한 여정!"이라고 남긴 바 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맞춰 미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 원'과 '비스트'(야수)라는 별명이 붙은 전용차량 '캐딜락 윈'도 모습을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1박 2일간의 방한 기간 미국에서 미리 공수해 온 이들 전용행기와 차량을 이용한 뒤 8일 에어포스 원을 이용해 베이징으로 떠날 예정이다.



김정숙 여사와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7일 오후 청와대 녹지원에서 한미 어린이 환영단을 만나 환담하다 어린이들이 선물한 책을 들고 미소짓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두 분의 국민방문으로 한국의 평화가 증진되고 양국의 신뢰관계가 더 돈독해질 것이라고 믿고 저도 힘을 보태겠다"는 입장을 보였고 멜라니아 여사는 "따뜻하게 환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고 화답했다.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국빈 방문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된 공식 환영식이 끝난 즈음 본관에 들어가기에 앞서 1층 로비 방명록에 "문 대통령, 매우 큰 영광이다. 고맙다(President Moon, This is such a great honor. Thank you!)"라고 적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미국 워싱턴 백악관 방문 당시 방명록에 "한미동맹, 평화와 번영을 위한 위대한 여정!"이라고 남긴 바 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맞춰 미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 원'과 '비스트'(야수)라는 별명이 붙은 전용차량 '캐딜락 윈'도 모습을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1박 2일간의 방한 기간 미국에서 미리 공수해 온 이들 전용행기와 차량을 이용한 뒤 8일 에어포스 원을 이용해 베이징으로 떠날 예정이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정부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 외튼 스쿨 동문인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을 보고 반가운 제스처를 보인 반면 한미 FTA 재협상에서의 한국 대표인 김현중 통상교섭본부장을 보고는 놀라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빈 만찬 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내외에게 한국을 대표하는 공예품인 눈수저와 돌그릇을 선물했다. 눈수저 뒷면에는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상징하는 슬로건으로 '함께 갑시다'라는 뜻의 영어 'We go together'를 새겼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여야 "트럼프 방한 환영 ... 한미동맹 강화·북핵 해결 전기 돼야"

여야는 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환영하면서 한미동맹 강화와 북핵 위기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전기가 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나마 직접적인 대어공세를 자제하자는 목소리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1992년 조지 H.W. 부시(아버지 부시) 전 대통령 이후 25년 만에 국빈 방문한다"며 "군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 해결, 그리고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오늘부터 다음주 초까지 정상외교가 연일 이어지는데 이는 대한민국의 국익과 한반도 평화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야당에 "국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대한민국을 둘러싼 중차대한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이뤄지는 만큼 한미동맹이 더욱 돈독히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환영하며, 한국의 실리외교를 기대한다'는 논평을 내고 "북핵과 미사일 위기, 한미 FTA 재협상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해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 의미 있는 만남이 되길 바란다"고 환영했다.

바른정당 전지명 대변인은 논평에서 "많은 국민이 새 정부가 북핵을 막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런 국민의 우려를 안다면 최대 우방의 정상과 함께 확고한 대북 의지를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후원 | KORAIL 광주본부 SR

| 본 상품은 우수해양관광상품공모전에 선정된 상품입니다 |

전복과 함께하는 땅끝마을·슬로시티 청산도여행 1박 2일

1일차

▶ 용산역(07:20) / 광명역(07:40) 도착 후 KTX 탑승
수서역(07:10) / 지제역(07:30) 집결 후 SRT 탑승
▶ 용산역(07:49) / 광명역(08:04) / 수서역(07:40) / 지제역(07:59) 출발
▶ **광주송정역 도착 후 출발(09:37)**
▶ 송호마을 도착 후 중식(12:00)
▶ 송호리해수욕장, 전복 양식장 견학(12:40)
▶ 송호마을 출발(15:00)
▶ 대한민국 국토 최남단 위치한 해남 땅끝마을 관광
※ 땅끝 모노레일이용시 개별부담입니다.
▶ 땅끝마을 출발(16:30)
▶ 숙소 도착 후 배정 및 자유석식(17:00)
※교통편: KTX or SRT 전용차 / 중식만 제공

2일차

▶ 조식 후 출발(07:00)
▶ 완도여객선터미널 도착(08:30)
▶ 완도여객선터미널 출발(09:00)
▶ 슬로시티 청산도 도착 후 관광-서편제, 봄의왈츠 세트장(09:40)
▶ 청산도 자유중식 후 출발(13:00)
▶ 완도여객선터미널 도착(13:40)
▶ 다산초당·백련사 도착 후 관광(15:00)
▶ 백련사 출발(17:00)
▶ 광주송정역광장 도착 후 송정 1913시장 관광 및 자유 석식(18:00)
▶ 광주송정역(KTX-19:39 or SRT-19:39) 출발(19:24)
▶ 광명역(20:54) / 용산역(21:10) / 지제역(21:05) / 수서역(21:32) 도착
※교통편: KTX or SRT 전용차 / 조식만 제공

출발역	성인			소인
	2인실	3인실	4인실 이상	
용산역-수서역	250,000	245,000	240,000	190,000
광명역-지제역	245,000	240,000	235,000	185,000
광주송정역	160,000	155,000	150,000	140,000

참고사항

- 최소출발인원: 10명 이상 출발 조건
- 포함사항: 왕복 KTX 열차비, 차량비, 숙박비, 1일째 중식 2일째 조식, 양식장 현장견학
- 불포함사항: 여행보험, 일정외 식사3회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의해 개인정보 수집, 이용, 보관이 불가능하므로 여행사에서는 여행상품 운영시 여행자보험에 대해 가입할 수 없이 개인이 직접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 연계버스는 출발인원에 따라서 차츰이 변경됩니다. (승합차/중형차/대형차)
- 상품별 최소 출발인원이 부족시 행사가 취소될 수 있으며, 최소 출발 4일전에 연락드립니다.
- 취소 환불규정: 여행출발 3일전 취소시 80% 환불, 2일전 취소시 50% 환불, 1일~당일 환불불가
- 홈페이지 접수: www.daewontour.com(대원여행사)

계좌번호: 농협 301-526-7000-191 (주)대원여행사

해외여행 · 국내여행 · 할인항공권 · KTX기차표 · 허니문 · 단체여행 · 골프투어 · 기차여행
 광주광역시 서구 무진대로 976 자승빌딩 1층 (현대자동차빌딩 옆) | 메일: daewonkr@hanmail.net
 Tel. 062)526-7000 H. 010-9715-1000 www.daewontour.com

(주)대원여행사